

# 진드기 매개 ‘쯔쯔가무시증’ 등 농촌지역 고령층 주의해야



## 건강 바로 알기 가을철 3대 열성 질환

가을철에는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에 의해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예방법을 잘 지키고 증상이 나타나면 일찍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진드기 조심 ‘쯔쯔가무시증’=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렸을 때 유충에 있던 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전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털진드기 유충은 알을 낳는 우기에 덩불이 우거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주로 사람의 땀구멍 및 모공을 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느끼기는 어렵다. 쯔쯔가무시증은 1951년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신증후군출혈열, 무증상 상태 쥐 타액 등 통해 감염 사망도  
지하수 등 오염된 물 감염 ‘렙토스피라증’ 9~11월 집중 발생

지역별로 전남, 경북, 전북, 충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털진드기 유충의 번식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급증한다. 다발성 장기부전, 쇼크, 뇌증, 호흡부전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교적 잘 치료되며, 사망률은 0.5~1% 정도로 낮다. 현재 예방접종은 따로 없고 혈청형이 다양하여 백신 개발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다. 풀이 많은 곳에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목이 긴 양말,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이나 야외활동 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풀숲에 옷을 벗어 놓거나 앉지 않고 용변을 보지 않는다. 집에 돌아온 즉시 활동복을 세탁하고 온 몸을 꼼꼼히 씻고 몸에 벌레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

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무증상부터 사망까지 ‘신증후군출혈열’=우리나라에서 신증후군출혈열은 1951년 6월 초에 UN군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등줄기나 집쥐가 한타바 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 상태로 쥐의 타액, 소변,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체외로 분비하고, 이것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연중 발생이 가능하나 대부분 10월~12월에 집중되어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남자, 군인, 농부에서 주로 감염되고 매년 약 4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한다.

감염 시 평균 2~3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생긴다. 전신 혈관의 기능 장애로 인해 저혈압, 쇼크와 신부전이 나타난다. 발열, 출혈, 소변량 감소

가 3대 주요 소견이나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며, 무증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인다. 치료약제는 없으며 적절한 대증요법이 치료이다.

조기에 진단하고 입원시켜 임상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나 예방효과에 논란이 많아서 군인, 농부 등 직접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게 제한적으로 접종을 권장한다. 10~12월에는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서 들쥐의 배설물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야외활동 후 돌아왔을 때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할 것을 권장한다.

◆오염된 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신성 감염질환으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사람공통감염증이다. 사람은 감염된 동물로부터 병에 걸리게 되며, 원인균인 렙토스피라는 보균 동물의 신장에서 만성적 감염으로 소변으로 배설되어 흙, 진흙, 지하수, 개울, 논둑물, 강 등을

오염시킨다. 사람과 동물은 오염된 소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감염된다. 렙토스피라증은 추수 전 시기에 태풍, 홍수, 장마 등과 관련이 있어 9~11월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계절적인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발생률은 유행 여부에 따라 연도별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며, 최근에는 연간 약 1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주증상은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순이며, 심한 경우 폐출혈이 발생하고, 황달, 신부전으로 진행한다. 백신은 없으며,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균 오염이 의심되는 고여 있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고여 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피부 보호를 위한 작업복(특히 장화)을 반드시 착용한다.

또한 홍수 이후 배변기·배설물기나 들쥐 포획 등의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자료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병원, 최신 디지털PET-CT ‘디스커버리 엠아이 디알’ 장비 도입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중훈)이 최근 미국 GE사의 최신 디지털 PET-CT인 ‘디스커버리 엠아이 디알(Discovery MI DR)’ 장비를 신규 도입해 가동을 시작했다. <사진>



조선대병원 핵의학과(과장 하정민)가 도입한 ‘디스커버리 엠아이 디알’은 쿼리어(Q.clear)와 인공지능 기술 등 미국 GE사의 최신 기능이 집약된 영상장비로써 피폭선량은 줄이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인 ‘PET’과 컴퓨터단층촬영검사인 ‘CT’를 결합한 장비로 2mm 정도의 작은 병소까지 감지할 수 있어 암의 조기 진단, 전이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가진 핵의학 장비이다. 특히 각종 암 진단은 물론 치매를 동반하는 뇌질환, 파킨슨 증후군, 심혈관 수술의 효과 확인 등 주요 국내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 검사에 폭넓게 활용되며 치료를 위한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30%가량 줄어들어 따라 검사에 의한 피폭도 감소됐다.

하정민 핵의학과장은 “2005년 가동 이래 약 2만 8000여건의 PET-CT 검사를 실시한 조선대병원은 이번 최신 PET-CT 도입으로 보다 더 정확한 정량분석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도입된 장비는 기존 장비에 비해 이상 조적을 찾아내는 민감도가 60%이상 증가된 장비이다. 환자 몸에 주입되는 방사성의약품 양도 약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병원 김상훈(오른쪽에서 세번째)·김명수(네번째) 원장과 담석센터 의료진이 ERCP 1000례 달성 기념촬영을 했다.

## 광주병원,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1000례 시술 달성

광주병원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 1000례 시술을 달성했다.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담관에 있는 담석을 빼내거나 담관암이나 췌관암으로 막힌 담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시술은 개복하지 않고도 간단한 담관염이나 담관암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 개복 수술로 인한 통증과 합병증을 줄이면서 입원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숙련된 전문의와 고가의 수술 장비가 필요한 탓에 지역에서는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광주병원은 지난 2004년 김명수 내과 원장이 지역 중형 종합병원급에서는 최초로 ERCP를 시작한 이후, 2012년 부임한 김상훈 내과 원장과 함께 지난 9월 17일 ERCP 1000례 시술을 달성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캐논사의 고해상도 혈관촬영기를 도입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과 시술을 하고 있다.

김상훈 광주병원 담석센터장은 “최신의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연 200례 이상의 ERCP 시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대한심장학회, 급성 심근경색증 약물 치료법 전문가 합의문 발표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회장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사진)가 최근 2020년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물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을 제작해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외국의 치료 방법과 국내 치료 경험 및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KAMIR) 논문을 토대로 우리나라 환자에 적합한 약물 요법을 정리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전용해제 치료법, 베타 차단제 요법, 레닌-안지오텐진-알도스테론계 억제제, 항혈소판제 1 지질강하제 등 5가지의 약물요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사들에게 권고안으로 제공되는 합의



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됐으며, 영문은 Korean Circulation Journal(2020;50:845-866)에 게재됐다.

이로써 국내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